

# 사회운동론2

---

- 사회운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 사회운동에서 활동가의 네 가지 역할

---

2018. 8. 16

---

비폭력 트레이너 네트워크 망치

---

용석&날맹



이 사업은 **인권재단** 사람이 지원합니다



---

# 하루 시작하기

## 홈그룹

- 어제 잘 잤나요? 오늘 나의 컨디션은?

## 동심원

- 전체로 나누고픈 질문이나 제안이 있나요?



---

# 시작게임

이중 동작 게임

“OO아, 지금 뭐하심?”

“응, 난 지금 예뻐지는 중”



# 평화캠프를 위한 용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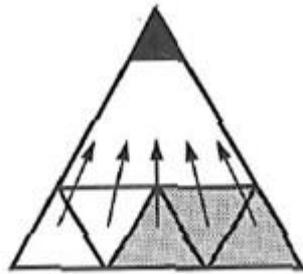
- **사회운동:** 폭넓은 기치 아래서 활동하는 그룹들이나 이루어지는 캠페인을 아우르는 개념. 운동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동일한 기치 아래서 다양한 그룹들이 활동하며 이루어진다.
- **캠페인:** 특정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특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사회적 활동. 공통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룹에 의해 만들어지며, 특정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기획된 일련의 행동과 활동들로 이루어진다.
- **전략:** 특정 목표(ex. 캠페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장기 계획.
- **전술:** 전략의 일부로 진행되는 특정한 행동(ex. 행사, 활동, 비폭력직접행동)
- **권력:** 한 사람이나 집단, 체제가 다른 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군림하는 힘 (Power over)과 더불어 행사하는 힘(Power w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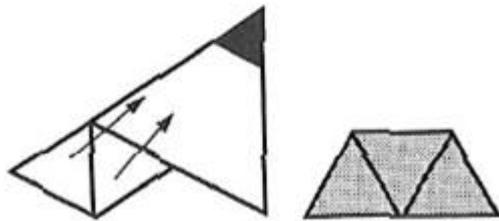
# 권력 이해하기1

## 군림하는 권력(Power over)

- 동의와 협조를 통해 만들어지는 힘이다.
- 공권력의 적극적 협조, 여론 주도층의 동의, 대중의 수동적 묵인에 의존한다.



지배층이 가진 권력의 원천



동의 철회의 결과

## 권력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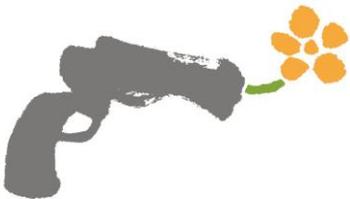
- 습관적
- 제재에 대한 두려움
- 도덕적 책무
- 사리사욕
- 정신적으로 지배자와 동일시
- 무관심
- 국민들의 자신감 결여



# 권력 이해하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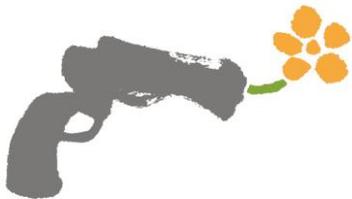
## 사회운동의 권력(힘)

- “인민의 정부는 인민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지배를 받겠다고 동의할 때에만 가능하다” (간디의 권력이론)->인민이 동의를 철회하면 군림하는 힘은 작동하지 않음.
- 비협조와 불복종이 권력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과 잠재력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 더불어 행사하는 힘(Power with): 구조 문제를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에 함께 도전.



# 사회운동에서 전략이 중요한 까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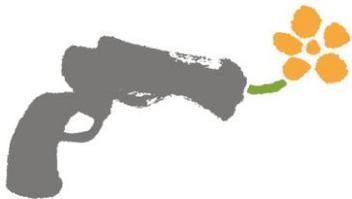
- 우리의 상대는 광범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다른 조건들이 모두 비슷하다고 할 때, 가장 좋은 전략이 승리한다.
- 좋은 전략은 한정된 자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한다.
- 낭비를 없애고 효과는 높일 수 있다.
- 운동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들(예시: 활동가들의 번아웃, 중요한 자원의 낭비, 내분, 절망 등)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 짜지어 토론하기

## 소그룹 토론 및 나누기

- 옆사람과 짜지어 방금 정리한 PPT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5분)
  - 방금 들은 내용 중에 새로운 것이 있었나요?
  - 그동안 생각한 것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무엇인가요?
  - 가장 인상깊은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인상깊나요?
- 전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발표해주세요.



잠시 쉬어요!



---

# 활동가의 네 가지 역할

- 활동가들의 역할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 네 가지 유형 - 반항아(Rebel), 개혁가(Reformer), 시민(Citizen), 변혁의 주도자(Change Agent)
- 때로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기도 하고, 역할을 바꿔갈 때도 있지만, 혼자서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
- 운동이 성공하려면 네 가지 유형 모두 다 존재해야 하며, 네 가지 유형 모두 다 효과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 반항아(Rebel)

많은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떠올릴 때 생각하는 유형의 활동가. 직접행동, 공개적인 반대 선언을 통해 문제를 정치적 의제에 올려놓는다. 하지만 스스로를 사회 주변부의 외톨이로 위치 짓고 전투적인 급진주의자처럼 행동하여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반항아들은 대중적인 운동이 시작되는 사건 이후에 중요하다. 대개 정치적 의제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다면 다른 운동으로 이동한다.



---

# 개혁가(Reformer)

기존 절차의 실패를 보여주거나 현실적이고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사람들. 종종  
운동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때때로 기존 제도를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운  
동의 성공을 강화하기에는 너무 작은 개혁을  
제안하는 경향이 있다.



---

# 시민(Citizen)

운동이 주요한 지지층을 잃지 않도록 한다.  
그들은 운동이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탄압으로부터 사회를 지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민은 권력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어버려 운동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 변혁의 주도자(Change agent)

모든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그들은 사회 구성원 다수를 교육하고 설득한다. 풀뿌리 네트워크를 조직하며 장기 전략을 세운다. 그러나 너무 이상향적인 비전을 고취하거나 단 하나의 방법만을 고수하여 효과적인 운동을 저해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나 활동가들의 욕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 활동가들의 네 가지 역할

<p><b>비효과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진한 시민: “공식정책”을 믿는다. 권력자들과 기존 제도가 권력이 없는 소수자들과 공공의 복리를 희생하여 지배집단의 특수 이익에 종사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또는-</li> <li>광신적 애국자: 권력자들과 국가에 대한 맹목적 복종</li> </ul>	<p><b>효과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들과 원리, 상징들을 고무한다. (예: 민주주의, 자유, 정의, 비폭력)</li> <li>일반적인 시민</li> <li>사회의 중심에 위치</li> <li>반사회적 행위에 대항한다.</li> </ul>	<p><b>효과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회활동: 공식적 주류 체제 및 제도 (예: 법원, 국회, 시의회, 기업 등)를 이용해 운동의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고, 공식적 법률과 정책, 관습적 지혜로 채택된 대안을 마련한다.</li> <li>다양한 수단 사용: 로비, 소송, 국민투표, 집회, 후보 출마 등</li> <li>전문대항조직(POO)은 운동의 핵심적 주도자다.</li> <li>감시자들은 집행을 감시하고, 성공을 확대하며, 반발에 대항한다.</li> </ul>	<p><b>비효과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실정치”: 권력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경미한 개혁을 도모한다.</li> <li>전문대항조직의 한계: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질서/구조, 조직적 유지/관리의 필요가 운동의 필요/목표를 대체한다. 지배권력이 운동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풀뿌리 민중으로부터 권력을 빼앗는다.</li> <li>패러다임 전환을 옹호하지 않는다.</li> </ul>
<p><b>시민</b></p>		<p><b>개혁가</b></p>	
<p><b>반항아</b></p>		<p><b>변혁의 주도자</b></p>	
<p><b>비효과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사회적, 반권위적이고 조직적 규칙 및 구조에 반대한다.</li> <li>전투적 급진주의자 또는 사회 주변부의 외톨이와 자신을 동일시한다.</li> <li>필요시 모든 수단을 불사: 특히 “필요하다면” 와해 전술과 기물 파괴도 가리지 않는다.</li> <li>현실적 전략이 결여된 전술</li> <li>풀뿌리 대중과 유리</li> <li>피해자적 태도 및 행동: 분노, 공격적, 재단적, 교조적, 무력감...</li> <li>“정치적 올바름”, 절대적 진리, 도덕적 우월성</li> <li>운동의 필요에 아랑곳 없이 사적인 감정과 욕구, 자유를 강하게 내세운다.</li> </ul>	<p><b>효과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항: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의 침해에 “아니오(NO)!”라고 외친다.</li> <li>비폭력 직접행동 및 비폭력적 태도 (시민불복종 등)</li> <li>대상: 공적 권력자들과 기존 제도</li> <li>문제/정책을 공공의 관심사 및 의제로 설정한다.</li> <li>전략/전술</li> <li>흥분을 불러일으키며 용감하고 위협을 무릅쓴다.</li> </ul>	<p><b>효과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중의 힘: 변화 과정에 일반 시민 다수와 사회 전체를 참여시키며, 이들을 교육하고 설득한다.</li> <li>대중에 기반을 둔 풀뿌리 조직, 네트워크, 활동가들</li> <li>사안을 정치적 의제로 설정한다.</li> <li>장기적 사회 운동의 전략/전술을 촉진한다.</li> <li>육성자 역할: 풀뿌리 대중의 역량을 강화한다.</li> <li>영속적 조직을 만들고 활동가들을 지원/육성한다.</li> <li>대안과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li> </ul>	<p><b>비효과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상향적: 너무 완벽한 비전을 고취하거나 실제 정치/사회적 투쟁과 동떨어진 대안을 실천한다.</li> <li>경미한 개혁만을 도모한다.</li> <li>운동 질서/조직의 가부장성과 억압적 위계</li> <li>편협한 시각: 하나의 접근법을 옹호하며, 다른 것에는 반대한다.</li> <li>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운동 조직/질서</li> <li>활동가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욕구를 경시한다.</li> </ul>

---

# 4가지 역할, 한걸음 더

## 소그룹 토론 (10분)

- 같은 역할 유형끼리 모여주세요.
- 너무 많이 모였다 싶은 곳은 더 작은 규모로 쪼개어 볼게요. 너무 적다 싶은 곳에는 망치 트레이너가 함께 할 거예요.
- 내가 이 유형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서로 나눠주세요.
- 얘기를 나눠보니 여기가 아니다 싶은 사람은 다른 그룹으로 고고~



---

# 4가지 역할, 한걸음 더

## 다른 역할유형과의 궁합 찾기 (20분)

- 같은 소그룹 안에서 다른 유형과 함께 활동할 때의 경험을 분석해볼게요.
  - ✓ “이 유형과 함께 하면 ooo이 좋다.” (도움 받을 때)
  - ✓ “이 유형과 함께 하면 ~ 할 때 힘들다.” (갈등이 될 때)
- 나온 것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화이트보드에 붙여주세요.
  - ✓ **반항아**(빨간색), **시민**(노란색), **개혁가**(연두색), **조직가**(파란색)



---

# 마무리

디브리핑 (앞에 화이트보드에 나온 것 진행자가 정리하면서 남는 질문과 코멘트 듣는 방식도 가능할듯)

옆사람과 어땠는지 이야기 나눌게요. (오전 전체? 아니면 활동가 4가지 역할부분만?)

